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참가준비사업 마감단계에서 추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기자와 대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손광호는 28일 조선중앙방송위원회 기자와의 대담에서 북측 선수단의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참가준비정형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남조선의 인천에서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가 진행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번 경기대회에는 45개 나라와 지역의 선수들이 참가하게 된다.

우리는 북남관계가 악화된 정세속에서도 평화와 친선을 지향하는 올림픽리념에 맞게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위해 경기대회에 선수단을 파견하기로 하고 그 준비를 본격적으로 다그치고있다.

우리가 경기대회에 큰 규모의 선수단을 파견하기로 한데는 비록 북남사이의 관계가 긴장하고 대결이 첨예하지만 이번 대회가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불신을 해소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게 하려는데 있다.

나라의 체육발전에 커다

란 관심을 돌리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참가를 위한 국가종합팀 남측 구견열경기를 몸소 지도해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남측선수단의 견열경기를 장시간 지도하시면서 우리 선수들이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하는것은 북남사이의 판계를 개선하고 불신을 해소하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된다고, 체육인들이 이번 경기대회를 통해 겨례의 화해와 단합에 적극 이바지해야 한다고 하시며 우리 체육인들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주고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하기에 지금 우리 선수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애족의 충고한 사상을 심장애 새기고 경기대회참가의 계기가 민족의 화해와 단합에 도움이 되며 북남관계를 개선하는데 기여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그 준비를 마지막 단계에서 다그치고있다.

그는 이번에 진행되는 아시아경기대회에 우리 올림픽

위원회대표단과 150명의 선수들, 감독, 심판원 등 필요한 보장성원들을 파견하게 되며 남측축구, 수영(수중체조무용, 물에뛰어들기), 유술, 조정, 사격, 력기, 기계체조, 활쏘기, 권투, 레슬링, 탁구, 커누, 마라톤, 가라데와 같은 14개 종목에 출전하려고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하였다.

우리는 올림픽정신에 맞게 아시아경기대회 규정과 관례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들에 적극 참가하고있다.

얼마전 인천에서 진행된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추첨식과 국제체육학술토론회에 우리 대표단이 참가하였다.

우리 대표단은 국제체육학술토론회에 참가하여 우리당의 체육중시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널리 소개전하였으며 여러 나라들과의 체육교류와 관련한 문제들도 심도있게 토의하였다.

29개 팀이 참가하는 남자축구는 중국, 파키스탄과, 11개 팀이 참가하는 여자축구는 벨라, 중국 홍콩과 한조에서 예선경기를 하게 된다.

우리 선수들은 사상전, 루지전, 속도전, 기술전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면서 훈련에서 더 많은 땀을 흘려 금메달로 조국을 빛내일 일념을 안고 분초를 아껴가며 훈련하고있다.

우리 선수단이 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한다는 소식에 접한 온 나라 인민은 경기를 마다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바라면서 진심어린 성의를 다하여 종목별 훈련장소에 찾아와 선수들을 적극 고무해주고있다.

우리 선수단의 아시아경기대회참가까지는 이제 얼마남지 않았다.

우리는 이 기간에 박차를 가하여 경기대회참가와 관련한 준비사업을 빈틈없이 완료하고 경기장마다에서 더 많은 금메달을 쟁취하여 우리 공화국기를 창공에 높이 휘날리겠다.

그는 응원단과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우리는 이번 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우리 선수들을 응원하고 북남관계개선에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위해 큰 규모의 응원단을 내보내기로 하였었다.

그런데 남측은 우리 응원단이 나가는데 대해 《대남정치공작대》니, 《남남갈등조성》이니 뽀니 하면서 로골적으로 헐담하고 비난하다 못해 지난 7월에 진행된 북남실무회담이 나와 응원단규모와 우리 공화국기의 규격문제를 시비하고 나중에는 우리가 입박에 꺼내지도 않은 비용문제까지 내들면서 회담을 결렬시켰다.

남측이 우리 응원단이 나오는것을 우려하면서 바라지 않는 조건에서 우리는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응원단을 내보내지 않기로 하였다.

이에 대하여서는 이미 지난 8월 20일부터 인천에서 진행된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추첨식과 국제체육학술토론회에 참가한 우리 대표단이 경기대회 조직위원회 관계자들과 남측당국 관계자들에게 통지하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본사기자



자주통일의지를 표명하는 남조선대학생들

지금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은 공화국의 자위적인 전쟁억제력과 병진로선에 대해 계속 이러쿵저러쿵 시비질하며 어떻게하냐 《북핵포기》의 야망을 이루어보려고 부질없이 놀아내고있다. 미국에 추종하여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도 황당한 잡소리들을 계속 늘어놓고있다.

얼마전에도 남조선당국자는 《8.15정축사》라는데서 《핵을 버리고 이교살아는것은 너무나 위험하고 비정상적》이라느니, 《북은 분단과 대결의 타성에서 벗어나 핵을 버려야 한다.》느니 하고 떠들었다.

이것은 공화국의 핵억제력에 대한 무지의 표현이며 동족을 어떻게하냐 무장해제하고 압살해보려는 불순한 기도의 산물이다.

공정한 내외여론이 일치하게 평화는것처럼 공화국의 핵은 그 누구를 위협하기 위한것이 아니다. 그것은 철두

철미 자위의 억제력이며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앞당기고 통일조국의 통성변명을 영민히 담보하는 민족공동의 귀중한 재부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례가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나라의 통일을 하루빨리 앞당기자면 우선 막대한 전쟁위험을 막고 평화를 수호하여야 한다.

민족공동의 귀중한 재부

민족의 생존이 있어야 통일도 필요있기 있다.

오늘 조선반도에서 끊임없이 전쟁위험을 몰아오는것은 미국이며 그에 추종하는 남조선의 호전세력이다.

미국은 조선반도의 절반땅을 타고앉은 그때로부터 근 70년이 되는 오늘까지도 반공화국적대시압살정책을 버리지 않고있으며 각종 전쟁연습과 무력증강에 매달리면서 북침의 기회를 호시탐탐

우리 민족이 근 70년을 헤아리는 분열의 고통을 극복하고 조국통일이라는 민족사적위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진리성을 확정한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어야 한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은 자주통일의 표대이다. 6.15공동선언의 기본핵인 우리 민족끼리는 조국통일문제해결에서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며 대한 자주의 리념이다. 민족의 힘은 단결에 있다.

우리가 민족끼리의 기치밑

제를 민족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자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우리 민족끼리는 민족의 대단결로 자주통일을 이룩할데 대한 민족단합의 리념이다.

조국통일은 어느 특정한 계급, 계층의 힘만으로는 실현할수 없으며 온 민족의 단합된 힘에 의해서만 성취할수 있는 거룩적위업이다. 민족의 단합없이 통일도 없고 민족공동의 리익도 지킬수 없다. 민족의 힘은 단결에 있다.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

자주통일의 표대 우리 민족끼리

에 하나로 굳게 뭉친 민족의 힘은 강하며 그것은 내의 반통일세력들의 그 어떤 방해책동도 짓부시고 조국통일위업을 승리적으로 떠밀어나갈수 있는 강력한 원동력으로 된다.

우리 민족끼리를 핵으로 하는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이후 북남관계와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는 일대 전환적구면이 열렸으며 자주통일, 평화변영의 새시대가 펼쳐지게 되었다. 우리 민족끼리의 통일합성이 온 삼천리를 진감하는 가운데 북과 남사이에는 다방면적인 대화와 접촉들이 진행되고 민족공동의 통일행사들이 성대히 진행되어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의 지를 내외에 힘있게 파시하였다. 북에서 남으로, 남에서 북으로 민족공조의 통일대화가 도도히 끊이치고 통

서해진 철도와 도로가 이어지는것과 같은 사면도 일어나 겨례의 자주통일열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북남사이에서 여러 분야의 협력과 교류사업도 광범히 진행되어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촉진시켰다.

6.15통일시대에 펼쳐진 이러한 사면들은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따라 나아갈데 조국통일운동에서 극복하지 못할 난관이란 있을수 없으며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은 자주통일의 영원한 표대라는것을 현실로 증명하였다.

오늘 우리 겨례의 조국통

일운동은 우리 민족의 통일을 달가와하지 않는 내외반통일세력의 발악적책동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난관에 직

면하여있다. 외세의 북침합동전쟁연습이 《방어적》이니, 《년례적》이니 하는 간판밑에 남조선의 하늘과 땅, 바다에서 매일같이 벌어지고있으며 그도 말미암아 북남관계도 파국상태에 처해있다. 그러나 우리 민족끼리리념에 기초하여 조국통일을 기어이 이룩하려는 온 민족의 신념과 의지는 확고부동하며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높이 자주통일과 평화변영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겨례의 힘찬 진군을 가로막을수 없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례는 자주통일의 표대-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기어이 성취하고야말것이다.

박 관 국

앞으로도 절대로 변할수 없다. 지난 세기에 무려 40여년간이나 조선을 강점하고 우리 겨례에게 피눈물나는 노예살이를 강요한 일본도 바다 건너에서 여전히 처첩의 칼을 버리고있다. 최근 일본이 《집단적자위권》행사를 기정사실화하고 독도갈랑야육을 더욱 로골적으로 드러내는 등 군국주의적책침의 길로 내다갔는것은 일본의 군국화책동이 위헌성을 넘어서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제반 사실들은 조선반도 주변에 침략적인 외세가 있고 그들의 침략본성이 변하지 않는 한 강력한 자위적억제력이 없으면 민족의 영원한 안녕과 변영을 담보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 평화는 오직 자기의 힘으로 지켜야 한다. 공화국의 핵은 통일조국의 힘이고 민족의 영원한 재부이다.

본사기자 최 명 제

도 전쟁연습의 화약내가 다시 공갈지 알수 없으며 매년에 가서도 또 올처럼 년초부터 년말까지 전쟁연습의 광란적인 포성이 계속 울리게 되리라는것은 너무도 자명한 사실이다.

북남관계개선과 북침전쟁연습소동은 도저히 함께 놓일수 없는 물과 불의 상극이다. 북남관계를 개선하자면 북침전쟁연습을 끝장내야 하며 북침전쟁연습을 계속하면 관계개선을 포기해야 마땅하다. 상대방을 침공하기 위한 위험천만한 합동군사연습은 예전그대로 계속하겠다고 하면서 《관계개선》하겠다고 떠드느것이야말로 파렴치한 현실기만이고 우리 겨례에 대한 우롱이다.

미국은 저들의 침략적인 동북아시아배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조선반도와 우리 겨례를 희생시키는 범죄적행위를 더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 남조선당국도 외세의 전쟁소동에 추종하여 민족의 머리우에 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어리석은 짓을 그만하여야 한다.

만약 내외호전세력들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화국의 성의있는 노력과 야망을 나약성으로 오만하고 이 땅에서 기어코 침략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그것은 제가 지른 불에 제가 타죽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것이다.

본사기자 김 응 절

단상

통일을 안고사는 마음

(그 녀석 벌써 돌아...)
이런 생각을 하며 친구의 집으로 향하는 나는 저절로 웃음이 나왔다. 안해가 떡돌같은 아들을 낳았다고 싱글벙글하던 친구의 얼굴이 떠올라서였다.

내가 친구의 집에 들어서니 가족들이 모두 모여 색동저고리에 모자까지 척 쓴 귀동자단장으로 해죽거리는 주인공의 앞날을 축복해주고있었다.

《영웅감》, 《박사감》, 《비행사감》...

서로 자기나름의 기대가 담긴 축복의 말들을 건네는 데 나에게 별스레 들리는 말이 있었다.

《우리 일국이 이름을 정말 잘 지었다. 리일국...》

친구의 어머니가 손자예를 대견스레 바라보며 하는 말이였다.

(일국?! 총각애들 이름치고는 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며 앉아있는 나에게 친구가 조용히 귀뜸하는것이였다.

《생각을 많이 하고 지었지. (일) 자는 우리 집과 인연이 깊네.》

나는 내심 친구의 가정과 인연이 있다는 《일》자에 호기심이 졌다.

얼굴에 물음표를 그리고 앉았있는 나에게 친구는 벽

에 걸려있는 자그마한 액틀속의 상장을 가리켰다.

파학자인 그의 아버지가 받은 무슨 발명증서나 표창장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유심히 뜯어보니 조국통일상증서였다.

나는 저것이 놀랐다. 자기가 것처럼 가까웠던 동무의 할아버지가 조국통일상수상자라는것을 전혀 모르고있었기때문이였다.

《우리 할아버진 늘 자식들에게 조선사람이라면 응당 통일을 안고살아야 한다고 하셨네. 연구사업을 해도 항상 분렬된 조국만이 아니라 삼천리강토를 생각했지. 또 처음의 의학자의 리상을 지리학과 바꾼것도 그때뿐이요》

친구의 말은 내 마음을 뜨겁게 울려주고있었다.

통일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

고향이 남쪽인 그의 할아버지, 일을 하느니 해도, 연구사업을 해도 늘 하나된 조국을 위해 힘썼다는 로인의 한생이 조국통일상메달속에서 빛나고있었다.

통일을 안고 살아온것이 어찌 그의 할아버지뿐이라.

통일은 합성원모두가 바라는 절절한 념원이었다. 반만년의 오랜 력사를 가진 단일민족이면서도 외세에 의해

갈라져 근 70년, 그 무수한 세월속에 우리 겨례가 당한 고통, 훈련 눈물을 어찌 다 이야기할수 있으랴. 통일만이 민족이 살길이고 후손만대의 행복과 평화변영과 잇닿아있는 길이다.

하기에 조선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든, 어디에 살든 통일에 대해 생각한다.

오늘 내외분렬주의세력의 악랄한 도전으로 북남관계가 진통을 겪고있지만 누구나 통일을 안고사는 마음들이어서 조국통일을 신심에 넘쳐내다보고있는것이 아닌가. 문득 노래의 한 구절이 떠오르고있었다.

갈라진 겨례의 피라는 소리
혈육의 부르짖음 남밖에
찾다
누구나 이 길을 막고나선자
일어나라 겨례들아 때는
가고나
...

그렇다. 온 민족이 통일을 마음속에 안고 반민족, 반통일세력의 책동에 맞서 거족적인 통일대행진을 벌리고있다.

한 가정의 레사로운 생활도 조국통일을 향해 시간이 흐르고있었다.

박 진 평

누구를 위한 연습이였는가

감추려고 연습을 전후하여 어울리지 않는 《대화》라정도 늘어놓았었다.

그러나 자루속의 송곳은 감출수 없다고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의 정체를 가리올수는 없는것이이다.

3만여명의 미군을 포함하여 수십만에 달하는 군병력과 민간인들까지 동원되고 핵타격수단들을 비롯한 여러가지 첨단살인장비들이 투입된 연습은 그 자체가 하나의 대규모 북침불장난이였다.

이번 합동군사연습에 적용된 《맞춤형억제전략》이라는것은 그 누구의 《핵, 미사일사용정후》라는 구실밑에 공화국을 불의에 핵선제타격하기 위한 위험천만한 작본이라는것이 어실치 립중되고 연습기간에 벌어진 《평양점령》을 노린 최대규모

의 련합상륙훈련, 불의적인 《군사분계선돌파》훈련, 《북점령후 행정단위복구》훈련, 북측뇌부를 노리는 특수작전 훈련 등은 그 모두가 방어가 아니라 북을 치고 점령하기 위한 훈련들이었다.

전쟁연습을 하면 몸매에 화약내가 배기 마련이다. 위험과 민간인들까지 동원되고 핵타격수단들을 비롯한 여러가지 첨단살인장비들이 투입된 연습은 그 자체가 하나의 대규모 북침불장난이였다.

이번 합동군사연습에 적용된 《맞춤형억제전략》이라는것은 그 누구의 《핵, 미사일사용정후》라는 구실밑에 공화국을 불의에 핵선제타격하기 위한 위험천만한 작본이라는것이 어실치 립중되고 연습기간에 벌어진 《평양점령》을 노린 최대규모

의 련합상륙훈련, 불의적인 《군사분계선돌파》훈련, 《북점령후 행정단위복구》훈련, 북측뇌부를 노리는 특수작전 훈련 등은 그 모두가 방어가 아니라 북을 치고 점령하기 위한 훈련들이었다.

전쟁연습을 하면 몸매에 화약내가 배기 마련이다. 위험과 민간인들까지 동원되고 핵타격수단들을 비롯한 여러가지 첨단살인장비들이 투입된 연습은 그 자체가 하나의 대규모 북침불장난이였다.

이번 합동군사연습에 적용된 《맞춤형억제전략》이라는것은 그 누구의 《핵, 미사일사용정후》라는 구실밑에 공화국을 불의에 핵선제타격하기 위한 위험천만한 작본이라는것이 어실치 립중되고 연습기간에 벌어진 《평양점령》을 노린 최대규모

의 련합상륙훈련, 불의적인 《군사분계선돌파》훈련, 《북점령후 행정단위복구》훈련, 북측뇌부를 노리는 특수작전 훈련 등은 그 모두가 방어가 아니라 북을 치고 점령하기 위한 훈련들이었다.

가장 불안정하고 전쟁위험이 높은 지역이고 그 주변이 누구인가를 더욱 똑똑히 인식하게 되었다.

전쟁연습을 강행한 미국과 남조선당국으로서는 군사적 목적은 제쳐두고 사실상 얻은것이 없다고 해야 할것이다. 오히려 정치적으로 막대한 손해만 보았을 뿐이다.

북침을 노린 전쟁연습이 북남관계악화와 긴장화를 몰아온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남조선에서 합동군사연습이 벌어질 때마다 그것은 어김없이 반복되어왔다. 이제는 그 력수도 어언 60여년, 연습의 횟수를 따지진 무려 1만 8 000여회나 된다.

남조선당국에 명백히 묻고있다. 이 땅의 주민은 우리 민족인데 언제까지 외세를 불독고 미국에 끌려다니

며 전쟁연습의 화약내를 계속 피우겠는가.

연예까지 동족을 적으로 여기고 전지전나는 북남대결의 력사를 지옥시키려 하는가.

전쟁연습의 총포성이 그칠새없이 울려오는 땅에서는 신뢰도 울투스 없고 북남관계도 진실로 개선될수 없다. 남조선당국은 기간적인 《대화》라령을 하기 전에 온 겨례의 평화지평에 찬물을 끼얹은 저들의 범죄적행위에 대한 똑바른 반성부터 해야 할것이다.

남조선당국이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압살정책에 추종하여 북침핵전쟁연습과 같은 동족대결책동에 앞으로도 계속 매달리려 하는 한 북남관계에서 기대할것은 아무것도 없다.

관계개선이냐 전쟁연습이냐. 평화냐 전쟁이냐.

남조선당국은 세계와 우리 민족앞에서 자기의 립장을 이제는 명백히 밝혀야 한다.

본사기자 서 희



↑ 전쟁연습을 반대하는 남조선인민들
← 북침전쟁연습에 미쳐날뛰는 남조선군

